

# 성수동 레미콘 공장부지 문화공원화 계획 및 설계

류광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본 연구는 도시와 산업의 변화로 인해 발생한 유휴부지의 활용으로 지역의 사회, 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유휴부지가 발생함에 따라 나타나는 대안적 공간의 성격을 검토하고, 여러 이해 관계를 종합한 결과를 성수동 레미콘 공장 계획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성수동 레미콘 공장은 이전 확정이 나기 전 약 40년간 서울시의 도시개발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지만, 오랫동안 지역의 기피 시설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주민들은 레미콘 공장의 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현재 도시계획 구상과 지역 발전 흐름에 벗어난 레미콘 공장은 향후 서울시의 매입으로 유휴부지가 될 것이며, 이에 따른 부지 활용 계획이 필요한 상황이다. 계획에 앞서 도시 내 유휴부지의 활용방안과 사례연구를 통해 개념을 정리하였고, 공원 계획시 시민참여 방안에 대한 이해를 진행하였다. 유휴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으로는 환경의 재생, 지역 산업 및 문화의 재생으로 압축되며, 성수동 레미콘 공장의 경우, 선행 연구 및 서울시, 주민의 의견을 종합해 과거 물리적인 개발을 공급했던 산업시설을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해줄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종합하였다. 산업시설의 재활용에 관한 이해 결과, 가장 큰 특징으로는 존치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 시설 도입으로 환경의 회복과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시대의 기대에 부응하며 가치를 재정의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시설의 가치와 구조적 경관미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공원을 계획함에 있어 지자체 및 설계자의 계획과 함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까지 계획 단계에서의 시민의 참여는 공청회와 시민워크숍 등이 있지만 형식적인 단계에서 그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각 지역사업에 속해 있어 의견을 모으기 힘들다는 점과 시민의 정보 수용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역 단체와 주민의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사업을 위한 일시적인 공청회가 아닌, 지역의 공공적 발전을 위한 주민 및 단체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여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이를 지역의 문화공간과 융화시켜 시민들의 주도적 활동이 문화 활동과 결합되어 상호간에 활동이 확대될 것을 고대한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전략으로 서울숲의 확장이라는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계획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광역차원의 도시계획에서 성수동 일대는 복합문화공간, 청년자원을 활용한

지역 재생 등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공원의 확장을 기본으로 하면서 과도한 상업적 개발을 방지하고, 기존의 휴게 및 녹지 확보의 역할에 문화기능을 더해 공간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도입하였다.

둘째로는, 대상지 및 일대의 구상에서 지역민의 의지를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상지인 레미콘 공장의 이전은 주민 약 15만 명의 서명으로 이루어졌지만, 현재 서울시의 공간 계획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대상지를 포함한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해 지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광역적 공간 계획이 필요하다. 계획 진행과정 중 주민 인터뷰 결과, 공공 도서관, 시민 공론장, 공공주택 등 공공성이 확보되는 공간과 주민 간 정보공유 및 교육, 협치의 필요성이 제안되었다. 따라서 대상지 인근 유휴부지 및 저이용부지를 선정해 광역적 공간 활용 방안을 제안한 후 대상지에 필요한 공간의 성격을 규정하였다.

셋째로, 입지여건 검토 결과, 광역적 접근성 확대와 대상지의 진입로 구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파악했다. 대상지는 지하철역과의 보도환경이 비교적 좋지 않아 대상지의 목적성 이용률 증대를 위한 기능과 셔틀버스 도입을 제안해 광역 접근성을 확대하였다. 또한 대상지는 인근 서울숲 및 중랑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부지에 위치하고 있고, 성수대교의 진입부인 성수대교 사거리로 인해 단절되어 있는 상태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진입로 계획을 통해 인근 자연경관과 연결할 수 있는 거점 조성 계획이 필요하다. 동시에 층고가 다른 각 접근로를 연결해줄 수 있도록 지형을 계획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지역의 기피시설로 인식되었던 레미콘 공장은 문화시설의 도입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고, 자유로운 시민활동이 가능한 문화공원으로의 조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가칭 성수문화공원은 지역 내 문화 활동 의지를 수용하는 동시에 서울숲 및 중랑천, 한강을 연결하는 공원의 거점이 되고자 한다. 또한, 공원 내 공연장 및 전시실은 서울 동북권의 부족한 문화시설을 충족하는 동시에 서울숲의 목적성 이용률 증가로 서울숲과 상호보완적 관계가 될 것이다. 미래의 공원은 단순히 녹지 및 휴게공간의 확보가 아닌, 지역 내 요구되는 문화 시설의 도입과 지역의 문화, 예술, 산업 등이

결합된 융합적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의 개발계획은 조경의 일방적 관점이 아닌 사회, 문화, 도시 등 다양한 분야와의 협력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향후 개발 과정에서 보완해야할 한계점으로 남아있다. 또한, 현재

레미콘 공장의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 현장답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시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예측을 통해서만 검토가 가능했다. 따라서 향후 설계 과정에서 시설 보존 및 기능 존치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